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이현복 교수, 복지부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이현복 교수(금융보험학과)가 국민연금 연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현복 교수는 지난 7년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학술연구, 정책자문, 교육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보험학회 사회보험학 원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의 제도 설계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다수의 연구와 제언을 통해 학문적·실무적 기여를 해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전북권역 자문단 자문위원으로서 지역 단위 제도운영에 대한 실질적 자문을 수행하며 2024년 '우수 자문위원'을 수상한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핵심 기반이 되는 생평표 개발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추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전주대 국민연금융합 전공 주임교수로서,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교육을 이끌며 제도 이해도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현복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책임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제도가 과학적 기반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발전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발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어르신들께 감동과 즐거움 선사'

한국나눔연맹 주관, 어르신을 위한 희망의 무대 '실버음악회' 성황리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한국나눔연맹(중앙총재 안천웅) 주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인 실버음악회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나눔연맹이 작년에 세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첫 번째 음악회로 200여 명의 김제시 어르신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김제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다채로운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실버음악회는 인기가수의 열정적인 무대, 활성적인 마술쇼, 흥겨운 민요와 국악 공연 등이 이어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공연 중간중간 어르신들의 손뼉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무대와 관객이 하나 되는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행운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추억을 선사했다.

안천웅 총재는 "지난해 세 차례의 실버음악회를 통해 김제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25년 첫 음악회로, 더



큰 감동과 행복을 드리고자 정성껏 준비했다."고 전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실버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어르신들이 문화와 여가를 통해 삶의 힘을 되찾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 자리에서 마련해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북직장어린이집연합회, 산불 이재민 성금 전달

전북지자지도는 13일 도청에서 전북직장어린이집연합회가 고장·정읍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백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종훈 전북지자지도 경제부지사와 이은영 전북시회복지공동모금회 시무처장, 박수경 전북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와 위로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직장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청과 전북은행 등 도내 직장 내 어린이집 3개소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전북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재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0민호 기자

정읍 칠보산, 패러글라이딩 전국 대회 성료

정읍 칠보산 활공장
이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지난 10월부터 11일 까지 열린 '제5회 정읍내장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패러글라이딩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열띤 경쟁 끝에 단체전에서는 전주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전에서는 연습조종사부 이인석(페레투어), 조종사부 문병국(전남 꼽네), 여성조종사부 임채희(페레투어), 최고 고도부 리讵비(페레투어) 선수가 각각 부문별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한빛원자력본부, '감사해孝 어르신' 행사 개최

고창군이 13일 태흥읍 당흘마을에서 홀로어르신과 생활지원사 330여명을 초청해 5월 가정의 달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 감사해孝 어르신 행사를 가졌다.

고창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어르신들의 현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 홀로어르신과 생활지원사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생활지원사의 어버이 은혜 합창·난타 등 축하공연·어르신 장기자랑·점심식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장기자랑 시간에는 참여하였던 6명 어르신들의 잠재되었던 끼와 열정 덕분에 모두가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현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고창군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한빛원자력본부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민원실 친절·응대 매뉴얼 교육 실시

남원시는 13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표준 인사 및 응대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서비스의 첫인상인 인사와 기본용어 대체로 제계회하고 모든 직원이 일관성 있는 민원 응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사에는 지양근 안전건설국장이 참여 △표준 인사말 사용법 △전화·대면 응대 메뉴 △상황별 응대 문장 활용법 등 현실감 있게 교육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 어버이날 카네이션 나눔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윤미, 민간위원장 박세근)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계시는 어르신 40명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생활용품 세트 나눔 행사를 가졌다.

행복보장협의체 회의에서 사업이 결정된 이후 복지장관과 협의체 위원들의 대상자 빌落到 통해 홀로 계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화분과 생활용품 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이었다.

카네이션 안부 나눔을 받은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이 쓸쓸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선물까지 전달받으니 행복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세근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 홀로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임설=진홍영 기자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신입생 제복 착복·승급식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13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신입생 제복 착복 및 승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제복 착복을 축하했다.

박연 학생 외 31명의 신입생은 명예와 긍지를 갖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학문과 실천을 겸비한 경찰행정 전문가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박노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제복은 단순한 복장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명과 책임의 상징"이라며 "학생들이 경찰현장의 정신을 기슴에 새기고, 전문 지식과 인성, 체력을 고루 갖춘 정의로운 경찰관으로 성장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석 경찰행정학과장은 "신입생을 비롯한 모든 재학생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 필아정, 단풍미인컵 전국 궁도대회 성료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제58회 정읍단풍미인컵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뜨거운 열전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정읍 필아정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우리 전통무예인 궁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궁도협회와 정읍필아정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00여 명의 궁도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과 정신력을 겨루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영광의 1위는 단체전에서 국성 반구정이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노년부 소재준(남원 관덕정), 장년부 이연백(정읍 합덕정), 여자부 박유리(군산 진남정), 실업부 김병관(대전 체육회) 선수가 각각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진안읍, 강풍 피해 농가 일손돕기 추진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강풍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본격적인 영농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복구 활동에는 정상적 읍장을 비롯해 진안읍 직원과 군청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농촌활성화과 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9일, 진안읍 일대는 강풍과 집중豪우로 인해 여러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구룡리에 위치한 한수재배 농가는 약 5,700㎡ 면적의 멀칭벼닐이 강풍에 의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진안군 직원들은 신속하게 일손돕기를 결정하고, 멀칭벼닐 재정비 작업에 힘을 보탰다.

정상적 읍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서진산업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장학금 기부

남원시는 (주)서진산업 강대용 대표(보궐면 출신)가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과 춘향정화재단 장학금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기탁해 남원愛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강대용 대표는 "저의 뿌리이자 성장 기반이 되어준 남원시에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기부금을 전달해 주신 강대용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